



송추 아트밸리서 풍요로운 가을 나들이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이 50여 명 초청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이 차인태 회장 주선으로 송추 아트밸리를 방문해 풍요로운 가을날을 보냈다. 아나운서클럽 문화 탐방 행사가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의 초청으로 10월 10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송추 유원지 인근 아트밸리에서 펼쳐졌다. KBS, MBC, SBS, CBS, 국군방송 출신 50여 명의 회원들은 오전 10시 광화문역에서 대형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송추 예술촌에 도착, 국악단 연습실 참관 후 미니 버스로 아트밸리를 둘러보고 3D 프린트실을 견학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한국 음악 전도사로 유명한 윤 회장의 국악기 설명과 함께 공연을 감상했다. 차인태 회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즐거운 나들이를 선사한 윤영달 회장에게 순금 한 돈으로 제작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4면에 계속

운영회의 열어 클럽 발전 방안 모색 한국어 위원회(위원장 김상준)도 개설



올 가을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클럽 하반기 운영회의(사진)가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중식당 '열빈'에서 열렸다. 차인태 회장은 김규홍, 김상준, 김재익, 김창욱, 김채영, 남궁미, 박민정, 송현식, 성선경, 신은경, 원종배, 이계진, 이병혜, 이현우, 이후재, 차기정, 채영신, 황인우 회원 등 1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이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방안을 추진해보자."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준 부회장 등 우리말 관련 강의 경험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11월 25일 정오 도곡동 한식집 '경복궁'에서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차인태 회장과 채영신 사무총장, 김상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계진, 박민정, 이병혜, 원종배, 이현우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나운서 교육 지도자 연수가 필요하다. 내년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대학교 한국어학당 등과 연계해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주는 사업을 펼쳐보자. 맞춤법, 표준어를 바탕으로 자체 기준 강의안을 마련하자."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우리말 관련 재능기부를 계속해왔지만 한국어 교육 TF 팀을 만들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이규향 회원이 <어문생활語文生活> 9월호에 '장단음은 국어 어휘의 근간이며 발음의 황금률이다'라는 칼럼을 실고 우리말 발음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정기 총회에서 만나요
3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열빈

/ 2019년이 떠나갑니다 /

2020년은 방송 100주년 되는 해 금지과 자부심 드높이자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전 MBC) 회장

여러분은 방송 100년의 주인공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무사히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소중함을 우리 함께 지켜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해 평탄한 적이 있었을까만, 2019년 우리나라는 유례 드문 격동의 시간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선뜻 희망希望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적 생존 환경인 경제, 안보, 국제 정치적 여건 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 未來를 낙관하기 어려운 엄중한 시기입니다.

최근 몇 년, 극단의 문화文化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타와 대립, 분노와 적개가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다툼을 앞세우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분열과 편가르기에 골몰하기보다는 일치一致와 감동感動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선改膳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언론과 방송 放送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론 형성으로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함에 모든 아나운서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등지'와 '모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원'과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은, 1920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KDKA라는 호출부호로 지구상에 첫 라디오 전파電波를 발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방송 통신의 융합 등 눈부시게 발전하는 미디어 현장에서 첨병으로 활동해 온 이 땅의 모든 아나운서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방송인의 금지과 자부심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 역대 회장님과 선배, 회원 여러분께 변함없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방송 100년의 주인공입니다.

2019 아나운서대상 시상식 MBC 골든마우스홀서 개최 대상 KBS 이규원 클럽상 KBS 최동석 MBC 구은영 수상

아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차미연) 주최 2019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이 아나운서클럽 황우겸, 박종세 고문을 비롯해 tbs 이강택 사장, (주)대상 이정성 상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3일 오후 6시 30분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렸다. 차미연 회장은 "방송하느라 분주했던 노고를 서로 보듬고 성과를 냈던 동료들 축하하는 자리이다. 새 사옥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러분을 초대하지 못해 이번에 집들이를 겸해 준비하느라 정성을 다했다.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애정으로 채워달라."라고 인사했다.

아나운서클럽 차인태 회장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한 일, 뚜벅뚜벅 한결 같이!"란 덕담과 함께 예년처럼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아나운서연합회 소속 10개 회장단 회의에서 KBS의 이규원 아나운서가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아나운서클럽상은 KBS 최동석, MBC 구은영 아나운서, 장기범상은 tbs아나운서부와 영화 <말모이>의 제작진이 수상했다. 2, 3면에 계속



2019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자

대상



KBS 이규원 후배들 더 칭찬하고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아나운서 생활 잘 마무리하겠다

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정오 뉴스>, 제1TV <인간극장>을 맡고 있는 이규원 아나운서는 축하 꽃다발에 파문혀 “수줍음 많이 타는 남편이 준 꽃다발은 들고 말하겠다. 방송할 때마다 행복하고 설렌다.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른다. 이젠 후배들에게 배울 점을 찾고 있다. 좋은 목소리 물려주신 어머니 이선강 여사님, 감사합니다!”라며 기뻐했다.

언니인 이규리(전 MBC) 회원에 이어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입사하며 ‘자매 아나운서’로 주목받았다. 입사 1년 만에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고, 1988년부터 91년까지 <9시 뉴스>를 진행했다. 혼인 후 다시 맡아 임신 막달까지 뉴스를 진행하며 첫 아이도 출산하는 등 금기시 되어온 관행을 여러 차례 깬 독보적인 아나운서로 한국어연구부장, 아나운서 1부장 등을 거치며 관리자 능력도 인정받았다. 1993년 한국방송대상 여자 아나운서상, 2018년 내레이션상을 수상했으며, 모교 정보과학대학원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클럽상



KBS 최동석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

<9시 뉴스>를 진행하느라 시상식에 불참한 최동석 아나운서는 “아나운서클럽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나운서가 주는 상, 특히 클럽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더 귀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일에 몰입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석 아나운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2004년 입사, 뉴스를 비롯해 <누가누가 잘하나> <생로병사의 비밀> <도전 주부가요스타> <리빙쇼 당신의 여섯 시>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사랑의 리퀘스트> <생방송 세상의 아침> <6시 내고향> 등을 진행했다.

경희대에서 의료경영학을 전공했고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4월부터 아나운서 1부 팀장을 맡고 있다.

영화감상을 즐기고 침체기엔 여행 하며 생각을 정리한다는 최동석 아나운서는 입사 동기 박지운 회원과 2009년 혼인해 1남 1녀를 두었다. 프리랜서로 바쁜 안사람 대신 자녀를 돌보느라 육아휴직을 써 화제를 모은 바 있다.



MBC 구은영 선후배 가교 역할 잘하겠다

“아나운서가 멋있게 보여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몇 배의 준비와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배님들이 어여쁘게 생각해서 주신 상이라 더 감사하다. 여의도 토박이라 열빈 모임에 자주 참석했기에, 거주지 특혜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반가운 선배님들이 점점 많아지기에 모임이 기다려진다. 오랫동안 인사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 바란다.”

구은영 아나운서는 서울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 국제경영학과에서 국제 마케팅을 전공했다. 2007년 입사 후 뉴스를 비롯해 <보고 싶은 밤 구은영입니다> <섹션 TV연예 통신> <통일전망대> <경제매거진> <파워매거진> <TV속의 TV>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토크쇼나 시사 교양 MC, 인물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한다.

어려움이 닥쳐도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 묵묵히 기다리며 때로는 알코올의 도움도 받는다는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로, 영화감상이 취미이고 늦잠 자기와 아무것도 안하기가 특기란다.

장기범상



tbs 아나운서부 <훈민정음> 특집 기획·제작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어디까지 아니?>를 기획·제작해,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담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소셜 문자의 발음에도 관심을 갖는 등 훈민정음 관련 프로그램의 지평을 넓혔다.

기존의 다큐멘터리 형식에서 벗어나 관찰 예능 형식으로 풀어간 새로운 시도로 초중등생 교육 자료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표로 상을 받은 정연주 아나운서는 “제정자인 이계진 선배님의 책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을 읽고 장기범 선배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포에 있는 묘소도 참배하고 왔다. 앞으로 공부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방송하며 더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화 <말모이>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일제강점기인 1941~42년, 조선어학회 대표 이극로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 말을 모으다 탄압당했던 사실史實을 다룬 영화이다. 엄유나 감독은 EBS 지식 채널 ‘말모이 작전’을 보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여 직접 각본을 쓰고 첫 메가폰을 잡았다. 상을 받고 “3년간 영화를 준비하며 단어를 가리게 되어 더 어눌해졌는데, 아나운서 앞에서 말하게 될 줄이야! 앞으로 말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뜻이 모인다’는 영화 대사의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된다.



라디오 진행상

시사

TV 진행상

시사

앵커상

대전KBS 김연선

〈5시N 대.세.남〉

시청자 만나는 순간이 더 소중한다

생방송으로 불참. 1995년 입사. 차별화된 본격 시사 프로그램으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5월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정한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OBS 김준호

〈뉴스 오늘〉

좋은 말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2010년 입사. 7년째 종합 토크형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오늘〉을 진행하며 2018년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 가을 개편에서 방송 시간도 70분으로 확대되었다.



MBC 박경추

〈5시 뉴스〉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1997년 입사.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 강제로 공백기를 갖기도 했지만, 약자를 대변하고 강자에게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아나운서의 모습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다.



제주CBS 박혜진

〈찬양이 있는 숲길〉

더 따뜻한 방송이 됐어

2002년 입사. 시사, 문화, 기독교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전공을 살려 클래식 음악회 해설을 비롯해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해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 강다솜

〈실화 탐사대〉

더 열심히 한다는 격려로 받아들인다

2010년 입사. 라디오 심야 DJ, TV 〈뽀뽀뽀〉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등에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사회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SBS 김소원

〈12시 뉴스〉

지금에게 집중하게 내어줬어

1995년 입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메인 뉴스, 러브FM 〈김소원의 SBS 전담대〉 등을 진행하며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시각으로 쉽고 생생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다.



교양

교양

KBS 장웅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매일 웃게 해주어, 아들이 사랑한다!

2000년 입사. 2007년부터 매일같이 제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를 진행해왔다. 장애인 스포츠 중계 실력도 인정받으며 지난 11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MBC 김정근

〈기분 좋은 날〉

즐거움도 잊지 않는 방송인이 되겠다

2004년 입사. 수습 기간부터 생방송 〈팔방미인〉에 투입되는 등 맹활약했다. 노조 파업을 계기로 2017년 퇴사했다가 이듬해 재입사해 다시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캐스터상

JTBC 송민교

열심히 방송하고 신나게 즐기겠다

2011년 입사. 스포츠의 재미를 알게 해주신 부친과 김종석 스포츠팀장 덕분에 2015년부터 스포츠 중계에 입문했다. 손연재 선수의 '리듬 체조 월드컵'과 정현 선수의 '테니스 4대 그랜드 슬램' 중계로 관심을 모았다.



대전febc 강수미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일에 쓰임이 있다는 건 참 기쁜 일!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중국에서 유망하는 탈북 고아들을 돕는 기부 프로그램 제작·진행 등 기독교 선교 사역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JTBC 강지영

〈차이 나는 클래스〉

노수지만 힘이 있는 우리 부원에게 주는 사랑

2011년 입사. 아나운서의 틀을 깨는 거침없는 질문들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유러피안투어 골프 중계에 입문해 골프 캐스터로서도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음악

예능

SBS 김정일

〈김정일의 생생 가요〉

꿈을 키워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1988년 CBS를 거쳐 1993년 개국 요원으로 입사. 2004년부터 새벽 가요 프로그램을 16년간 진행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The Voice of SBS'에 선정되었다.



SBS 김윤상

〈백종원의 골목식당 - 배달맨〉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아름다운 밤이네요!

〈스포츠뉴스〉 생방송으로 불참. 2015년 입사. 배달맨 역할을 위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등 몸사리지 않는 열정과 노력, 뛰어난 순발력으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BBS 최은경

〈음악이 흐르는 풍경〉

주인 상의 무게 무겁게 느껴졌다

생방송으로 불참. 1996년 입사. 2014년 말부터 퇴근길 불자들을 뱃해주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불교·명상 음악 프로그램 제작은 특장점이라 할 만하다.



KBS 이승연

유튜브 〈언더퀴즈〉

예능 MC가 처음인데 상을 받아 기쁘다

2003년 입사. 연예인과 우리말 퀴즈를 풀어 점수만큼 난치병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KBS 공식 유튜브 프로그램 〈언더퀴즈〉를 기획·제작·진행해 수상 중에도 촬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공로상

춘천KBS 윤만오

노병에게 큰 상 주셔서 고맙다

1985년 입사. 내후년 퇴직하게 돼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행은 물론, 뉴스를 비롯해 〈오감만족〉 〈시사파일〉 〈집중진단〉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장 내 화합에 기여했다.



CBS 방송언어연구회

모두 함께 교본 만들어 줬다

새로운 표준 교본을 펴내 아나운서뿐 아니라 방송 직군의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정훈 협회장은 "30년간 방송 언어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특히 올해는 박명규 선배를 주축으로 17명 전원이 1년 6개월간 작업하며 〈아나운서 길잡이〉를 발간해 의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나운서클럽의 송축 아트밸리 나들이



아트밸리는 2016년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운영달 회장이 '예술 경영'을 추구하며 330만㎡에 조성 중인 종합 문화예술 테마 파크이다. 2007년부터 시인과 조각가 20명이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동락 연희단과 락음 국악단이 상설 공연을 펼치고 있다.

황우겸 고문은 "아트밸리에 와보니 동심으로 돌아가 예술인이 된 기분이다. 토종 제과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국악 등 예술 분야를 후원하니 존경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석기 회원은 "포근하고 달콤한 날,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했고, 김상준 부회장은 "어렸을 적 과자는 꿈이었다. 이 계곡에 낙원을 짓고 아트 경영을 실천하는 크라운해태제과의 번영을 기원한다."라고 축원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주혜 회원은 건배사로 "아무나! - 아나운서는 무슨 분야에서나 도통하고 싶어한다."라고 외쳤고, 신은경 운영위원은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진달래!"라고 건배했다.

가을 나들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준 KBS사우회 박재현, 류인창, 김재용, 이태수 회원에게도 감사 인사드린다.



회 | 원 | 동 | 정

‘최만린미술관’ 내년 봄 개관 앞두고 사전 공개



최만린(전 KBS) 고문의 자택을 개조해 조성 중인 ‘최만린 미술관’의 사전 개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미술 애호가의 관심을 모았다.

성북구가 최만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1988년부터 거주했던 정릉 자택(서울 성북구 솔샘로7길 23)을 구립미술관 분관으로 개조하면서, 내년 봄 정식 개관을 앞두고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전 개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가의 집이 미술관이나 기념관으로 변신한 ‘하우스 뮤지엄’에서 열린 수장고 개방전 <0 컬렉션>과 <조각가의 서재> 등을 통해 어지러웠던 시대 한국 조각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민했던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 최만린 고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후배들이 ‘이지연 아나운서 방송 50년 축하’ 이벤트



CBS 출신 이종은, 변순복, 차기정, 배유선, 변춘애, 이명희, MBC 박민정, KBS 황인우, 이금희 회원 등이 반백년 세월을 씬 없이 마이크 앞에 선 선배 아나운서에게 존경을 표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11월 13일 NS 홈쇼핑의 교양 프로그램 <이지연의 명품포감> 녹화장인 상암동 콘텐츠진흥원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해 순금 기념패 증정식을 한 것이다.

“굳이 인생 마디마디에 점을 찍는다는 것도 그렇고, 후배들 번거롭게 하는 것도 미안하다.”라며 조출한 축하 자리마저 고사했던 이지연 회원은 녹화가 끝난 후 근처 한식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굳은 날씨에 상암동까지 오게 해 미안하고 고맙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방송하겠다.”라고 말하며 50주년 기념으로 후원금 50만 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

MBC OB 모임 열어 처음 참석한 회원 등 환영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영환, 송재익, 고창근, 정영희, 김기덕, 신중섭, 정연호, 차인태, 양진수, 문무일, 박민정, 서은선, 조일수, 이인숙, 조석영 회장

10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포면옥에서 MBC사우회 회장이자 아나운서클럽 회장인 차인태 전임 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MBC 아나운서 OB 모임이 열렸다. 대구MBC에서 SBS 개국 요원으로 이직해 스포츠 국장을 지내고 정년퇴직 한 후 한국방송협회 산하 DTV코리아에서 근무 중인 신중섭 회원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 문무일 회원이 처음 참석해 조석영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흥숙(전 MBC) 운영위원 포천에서 풍경화 초대전 개최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포천의 갤러리 레스토랑 PATIO 25에서 풍경화 초대전을 개최했다.

그림사랑회, 인사동사람들, 현대미술작가 연합회 등에서 활동해온 정 운영위원은 2016년 대한민국현대여성미술대전에서 특선, 201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황유성(전 KBS) 5번째 수필집 「모란꽃 피는 뜰」 출간



인터북스에서 희망과 용기, 꿈의 진실을 노래한 수필집 「모란꽃 피는 뜰」을 출간했다.

황 회원은 1965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DBS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언론 통폐합으로 KBS로 보도본부, 올림픽방송본부, 편성실, 뉴미디어국, 국제방송국 등에서 근무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강의했다.

그러다가 2003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불굴의 투지로 문필가로 변신해, 학술서 「초창기 한국 방송의 특성」(법문사, 2008), 수필집 「저녁놀 푸른 꿈」(2008, 서울학교방), 「석모도 가는 길」(2009, 인터북스), 「늦게 터진 박수」(2010, 인터북스), 「그들의 9회 말」(2012, 인터북스)을 펴냈다.

채영신(전 KBS) 사무총장 KBS사우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맡게 돼



KBS사우회 이사로 활동하며 새 해부터 이인숙(전 KBS) 회원에 이어 여성위원회 제2기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백연숙(전 MBC) 운영위원 영국 캠브리지서 황인우 편집장 만나



11월 8일 유럽을 여행 중이던 황인우(전 KBS) 편집장을 영국 캠브리지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환교수인 아들 가족과 지내고자 지난 8월, 1년 예정

으로 영국으로 이주한 백 운영위원은 멀리서 찾아온 후배를 위해 캠브리지 대학을 끼고 흐르는 캠강에서 뱃놀이 하는 캠강 폰팅(사진)을 비롯해 정성 어린 선물과 저녁 식사를 준비해 감동을 주었다.

방남순(전 MBC) 서울대 생활과학대 총동창회장으로 활약



지난 4월,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목련회 회장으로 취임해, 생활과학대 개설

50주년을 맞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이끌었다.

방남순 회원은 모교에 1억 원의 장학금 기탁을 목표로 눈코뜰 새 없이 비쁘게 뛰 결과, 목표를 3,000여 만 원이나 초과 달성했다고 뿌듯해했다. 1974년 입사해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결혼을 계기로 모교인 진명여고 교사로 이직해 2013년 정년퇴직 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고양학원 감사로 재직 중이다.

차기정(전 CBS) 운영위원 강남시니어합창단 송년 음악회 무대 서



강남시니어합창단 창단 4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 무대에 서기 위해 연습에 한창이다.

강남시니어합창단은 50여 명으로 구성된 혼성 4부 합창단으로, 12월 21일(토) 오후 4시 서울교육대학교 사양문화관에서 아나운서클럽 박민정 감사의 사회로 송년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박선영(전 MBC) 물망초음악회 열어 감동의 무대 선사



물망초재단 이사장으로서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배현진(전 MBC) 회원 사회로 물망초음악회를 개최했다.

탈북 여성 40명으로 구성된 물망초합창단과 국악인 박애리의 합동 공연 등 감동의 무대를 선사 했다.

오승연(전 SBS) 토셀(TOSEL) 부위원장으로 활약



TOFEL과 TOEIC을 대체하기 위해 EBS 주관으로 2004년부터 시행한 토셀(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이 베트남과 미얀마에 도입되면서 11월 21일 오후 고려대 라이시움 4층에서 TOSEL 전진 기지 개소식에 이어 이튿날 출정식을 열었다. SBS 공채 8기 아나운서 출신인 오승연(사진 하단 왼쪽에서 5번째) 회원은 부군인 국제 TOSEL위원회 이호열 위원장과 함께 토종 영어능력 인증시험인 토셀을 발전시켜왔다.

방 | 송 | 가 | 소 | 식

방우회 제28회 바른말 보도상 KBS 김원장 MBC 김수진 기자, SBS 최혜림 아나운서 수상



수상자 최혜림과 김상준 부회장

원로 방송인 모임인 한국방송동우회(회장 정관영)가 바른말을 계도하기 위해 제정한 제28회 바른말보도상 시상식이 12월 13일 오전 11시 KBS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영우 고문에 이어 김상준 부회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2019바른말보도상은 KBS 김원장 MBC 김수진 기자와 SBS 최혜림 아나운서가 수상했다.

원주MBC 박지현,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 수상



수상자 박지현

박지현(원주MBC) 아나운서가 2018년 제작한 특별 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미투 없는 세상>으로 12월 5일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양성평등 미디어상 방송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폐쇄적인 지역 사회의 내밀한 성폭력 문제까지 다루어 성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뉴스 개편, 최동석 이승현 김도연 박지원 투입



대표 뉴스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졌다. 평일 9시 뉴스는 메인 앵커 여성 기자와 남자 아나운서 체제로 바뀌어 이소정 기자와 함께 30기 최동석 아나운서가 담당한다. 평일 <정오 뉴스>는 39기 이승현 아나운서가 김태욱 기자와 호흡을 맞추고, 45기 박지원 아나운서가 <주말 9시 뉴스>, 김도연 아나운서가 평일 <뉴스 광장> 앵커로 발탁되었다.

대표 뉴스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졌다. 평일 9시 뉴스는 메인 앵커 여성 기자와 남자 아나운서 체제로 바뀌어 이소정 기자와 함께 30기 최동석 아나운서가 담당한다. 평일 <정오 뉴스>는 39기 이승현 아나운서가 김태욱 기자와 호흡을 맞추고, 45기 박지원 아나운서가 <주말 9시 뉴스>, 김도연 아나운서가 평일 <뉴스 광장> 앵커로 발탁되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39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중계

KBS는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경기를 중계했다. 서기철, 최승돈, 이재후, 이영호, 이광용 아나운서 등이 축구, 농구, 유도, 태권도,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을 중계했으며, 한상현, 강승화, 김종현, 남현중 아나운서 등도 중계 경험을 쌓았다.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을 중계했으며, 한상현, 강승화, 김종현, 남현중 아나운서 등도 중계 경험을 쌓았다.

이승연 김보민 오연중 활약, 유튜브 <언더퀴즈> 인기

이승연·김보민(29기), 오연중(33기) 아나운서가 유튜브 프로그램 <언더퀴즈>를 직접 기획, 섭외, 제작하고 있다. 송가인, 박나래, 하승진, 강하늘 등 스타들이 우리말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난치병 환우들에게 기부금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개설 두 달도 안 돼 구독자 5천 명을 돌파했다.

등 스타들이 우리말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난치병 환우들에게 기부금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개설 두 달도 안 돼 구독자 5천 명을 돌파했다.



문화방송 제58주년 창사 기념식 개최 전종환 등 수상

MBC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12월 2일 개최한 창사 기념식에서 전종환 차장이 창사 기념 포상 개인 우수상을 받았고,

허일후 차장과 우리말팀(이정민 차장 외 4인)이 성과 격려상을 받았다.

본사 계열사 책임자 회의 열어 아나운서 미래상 논의



11월 22일, 아나운서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원주 등지에서 10여 명이 참석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아나운서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손정은 아나운서, 광주 김귀빈 아나운서의 유튜브 경험과 국립국어원의 방송 언어에 관한 발표도 있었다.

문학동네와 공동 주최 겨울 낭독회 12월 20일 열어

MBC 아나운서와 문학동네가 함께하는 겨울 낭독회 '책은 언제나 봄'이 '위로'를 주제로 12월 20일 오후 6시 30분, 상암 MBC 골든

마우스홀에서 열린다. 주변의 이웃 2백여 명을 초청해 함께 작품을 낭독하며 '듣고 말하고 따스함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신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조정식 출연



소형석 PD가 연출하고, 텔런트 이동욱, 개그우먼 장도연, 조정식(왼쪽에서 2번째)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가 12월 4일 텔런트 공유를 게스트로 한 첫 방송을 선보였다. 스튜디오에서 나누는 토크, 연관 장소에서 나누는 현장 토크, 시추에이션 토크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식의 토크쇼이다.

<모닝 와이드> 진행자 교체, 앵커 정미선 MC 김주우

11월 4일부터 정미선 아나운서가 이병희 아나운서에 이어 <모닝 와이드> 1, 2부 앵커를 맡았다. 저녁 메인 뉴스와 아침 뉴스 앵커로 친숙한 정미선 아나운서는 아침에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주우 아나운서가 3년동안 진행한 조정식 아나운서 뒤를 이어 <모닝와이드> 3부 MC를 맡았다.



새 아나운서 교본 <아나운서 길잡이> 펴내



CBS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후배를 교육하기 위해 아나운서부에서 <아나운서 길잡이>를 펴냈다. 아나운서 교육서의 일반론을 넘어 채널의 특성과, CBS 아나운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지수, 에세이 <팝의 위로> 발간

유지수 아나운서가 16년간의 방송 생활과 <유지수의 해피송>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팝의 위로>를 펴냈다. '팝, 그 속에 숨은 온기' 라는 부제답게 각 에피소드마다 처방전처럼 팝송을 소개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가을 개편으로 뉴스 시간대와 타이틀 변경



10월 28일 가을 개편으로 뉴스 시간대와 일부 타이틀이 변경되었다. <아침 뉴스>는 평일 7시 45분에서 7시 30분으로, <경인 투데이>는 평일 11시 45분에서 11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 오늘>은 평일 오후 4시 45분에서 5시 10분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방송시간도 기존 60분에서 70분으로 확대되었다. 메인 뉴스 <뉴스 745>는 <뉴스 중심>으로 타이틀을 바꾸고 오후 7시 30분으로 방송시간이 조정되었다. <뉴스라인 인천-경기>는 10분 당겨진 오후 10시 25분에 방송되며 시간도 10분 확대되어 35분간 방송된다.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어디까지 아니?> 기획·제작



tbs 아나운서들이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어디까지 아니?>를 기획·제작했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방송된 <훈민정음 어디까지 아니?>는 우리 문자의 뿌리인 훈민정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책으로서의 평가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훈민정음의 가치를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tbs Culture'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19 서울교통문화상' 진행

나선홍, 조현아 아나운서가 10월 31일 t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 '2019 서울교통문화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았다.

서울교통문화상 시상식은 서울시와 tbs가 해마다 진행해온 행사로 서울의 교통안전과 문화 발전으로 시민의 공공적 가치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찾아 교통문화상을 수여한다.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 '방송 가족의 밤' 개최

10월 14일 전국 극동방송이 '와닿는 찬양, 가닿는 복음'을 주제로 가을철 정기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복방 선교 방송의 활성화' '음악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시프트제 도입을 통해 양질의 음악방송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SNS 콘텐츠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한편 11월 7일 인천 부평감리교회에서 '방송 가족의 밤'을 열었다.

송옥석, 포항극동방송 지사장 취임



12월 18일 포항극동방송의 지사장으로 취임했다. 담당하던 <좋은 아침>은 포항에서 생방송해 전국으로 중계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아나운서협회장은 남현용 아나운서가 맡았다.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공개방송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공개방송이 이정민

아나운서와 시각장애 방송인 이동우(사진)의 진행으로 10월 17일 서울 역삼동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개방송은 선교회의 숙원 사업인 성라파엘 사랑결 성당의 경당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제 개최



제11회 한국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 연합 합창제가 11월 16일 새남터성당에서 김지현 아나운서 진행으로 열렸다.

올해는 cpbc소년소녀 합창단(사진), 마니피카트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뿌에리 간도레스는 전 세계적인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조직으로, 한국 연합은 1994년 9월 창단해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열어 천상의 화음을 들려주고 있다.

성탄절 앞두고 대림 개편 시행

12월 3일 대림 개편으로 박성호 아나운서가 생방송 <황우창의 음악정원> 제작을 맡았다. 음악칼럼니스트 황우창이 진행하는 <황우창의 음악정원>(월~토, 10:00~12:00)은 친숙한 팝부터 제3세계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과 영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한편 둘째를 임신한 김슬애 아나운서는 11월 29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제10대 이선재 사장 취임



11월 29일 이선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산학 협력 교수가 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4년이다.

이선재 사장은 1986년 KBS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광주방송총국장, 보도본부장, KBS 미디어 사장 등을 지냈다.

'붓다 시리즈' 불교언론문화상 수상



아나운서들이 제작하는 오디오 팟캐스트 '붓다 시리즈'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성준, 서울대에서 스피치 특강

정치학 박사인 박성준 팀장이 10월 31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와 스피치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공공 외교에서 언론의 역할, 스피치의 유형과 형식, 대통령의 스피치와 국가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 국가 평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 2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 "너 이름이 뭐니?"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론학 박사

이번 호는 2017년 「말과 글」에 발표한 '아름다운 한국어 힘 있는 한국어 가운데 'ㄴ·ㄹ' 발음의 문제점을 참고로 작성한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연예인들의 말투를 흉내 내는 경우가 있다. "너 이름이 뭐니?" - 이 말에서의 문제는 '뭐니'의 발음이다. '뭐니'의 발음은 한국어에서 [mwɔ:ni]로 소리가 난다. 그런데도 연예인이 "너 이름이 뭐니?"라고 하면서 구개음인 [mwɔ:ni]가 아니라, 치조음인 [mwɔ:ni]로 발음을 한 것이 우스갯소리로 변진 것이다.

우리말 '뭐니'만이 아니라 '가니, 보니, 하니' 등에서 '니'는 치조음齒槽音 [ni]가 아닌 구개음口蓋音 [ni]로 해야 한다. '나' 행의 단모음 '나 너 노 누 느'는 치조음 [n]이다. 이중모음 '냐 녀 뇨 뉴 느'는 구개음 [ɲ]로 소리가 난다. 그리고 '나' 행에서 마지막인 중성모음中性母音 '니'는 치조음도 되고, 구개음도 된다. 치조음으로 나는 경우는 [ni]는 '니은, 무늬, 하늬바람' 등이다. 그리고 구개음 [ɲi]는 '님, 언니, 어머니, 선생님' 등이다.

이런 차이점을 발음사전에서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규향, 이주형, 김상준'의 「한국어발음사전」(지구문화사, 2008)은 니은[ni'un]과 어머니 [a'mɛɳi]의 'ㄴ'을 구분하고 있다. IPA 발음표기에서 'ː'는 악센트(accent) 표기이다. 지구문화사 발음사전은 한국어 발음사전 중 최초로 악센트 표시를 하고 있다. 우리말 '니은'의 악센트는 '은'에, '어머니'의 악센트는 '머'에 있으며, '엄마'는 '엄'에 있다.

필자는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어머니~"라는 말이나, "선생님~"이라는 말을 구개음 [ɲi]가 아닌 치조음 [ni]로 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때 배우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일본말은 '나냐, 니니, 누ぬ, 네ね, 노の'가 모두 치조음이다, 그래서 '어머니' '언니'에서의 구개음 '니'를 일본어식인 치조음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과거 국어음운론에서는 'ㄴ'이 'ㄷ'나 'ㄹ' 선행모음, 즉 'ㄴ ㄷ ㄹ ㅅ ㅈ ㅊ' 등과 합해지면 구개음 [ɲi]로 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ㄴ'이 'ㄷ'와 합해질 때 '니은, 무늬[무니]'처럼 치조음 [ni]로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우리말 '냐 녀 뇨 뉴 느'는 두음에 쓰지 않도록 하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님'이라는 말을 '임'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냐 녀 뇨 뉴'는 '야 여 요 유'로 쓰더라도, '님'이라는 말은 두음에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의존명사로 무게의 단위인 '냥쫙(兩一)'은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두음에 쓰고 있다.

한국어는 일본어나 영어에 비해 어려운 말이다. 바로 이 어려운 한국어가 음성학적으로 대단히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AI가 시적인 표현과, 농담, 빈정거림 등 언어의 모호성을 초월하는 말을 100%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45년쯤이면 한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이때를 미래학에서는 특이점(singular point, singularity), 혹은 변곡점(point of inflection), 임계점(critical point)이라고도 한다.

Zoom-in KBS 69회 홈 커밍 데이

입사 50주년 맞아 뜻깊고 멋진 기록을 보내다

1969년 입사한 KBS 아나운서 모임 69회가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의 50년' 이란 홈 커밍 데이를 개최했다.

PD로 전직前職해 <아침마당>을 연출했던 김성웅 회원의 탁월한 기획력에 편성의 귀재인 전 KBS사우회보 편집장 김지문 회원이 힘을 보탰고, 아나운서실장 출신 박용호 회원이 아들인 박태원 아나운서 등 현역과 조율해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물론 어렵사리 69회의 맥을 이어온 김순자 전 회장의 노고에 시원시원한 성격의 이해옥 현 회장이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9년 3월 실시한 KBS 아나운서 공채에 1,600여 명이 응시해 39명이 합격 통보를 받고 연수 후 4월에 전국으로 배치되었다. 미주로 건너간 강미란, 노시창, 정철웅 회원, 서둘러 하늘나라로 떠난 장희영, 최병일, 김현중 회원 등 근황이 파악된 동기가 24명.

그 중 김두석, 김병래(부산), 김성웅, 김수홍, 김순자, 김지문, 박용호, 송광자, 양창석, 윤광순, 이해완, 이해옥, 전인선, 정정화(대구) 회원 등 14명이 입사 50주년을 자축하며 뜻깊은 하루를 함께했다.

이미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중이라

아쉬웠던 남산 구舊 청사 자리와 유허비 遺墟碑만 남아있는 정동 첫 방송터를 거쳐 여의도 방송국을 방문한 69회 회원들은 아나운서실 후배들의 환대에 감동받으며 라디오 <정오뉴스>를 지켜보고 본관 식당에서 현역과 오찬 후 아나운서 교육실에서 선후배간 정담을 나누었다. 이어 양승동 사장 접견 후 TV 기술국장, 라디오 편성국장의 안내로 제작 시설을 견학하고 <개그 콘서트>를 방청했다.

그리고 입사 당시 문화공보부 방송 관리국 지도계 신입사원 연수 책임자였던 KBS 사우회 김선초 회원과 10년 후배인 황인우 편집장이 함께한 가운데 여의도 중식당 열빈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펼쳤다. '나의 50년 토크'는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로 어디에서든 빛나는, 다재다능한 아나운서 출신들의 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찬부터 참여한 김두석 회원이 첫 순서로 나와 "보도국에서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부한다. 요즘은 7인조 아코디언 봉사단을 조직해 요양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뒷줄 왼쪽부터 김수홍 김지문 박용호 김두석 이해완 전인선 윤광순 송광자 김순자 양창석 이해옥 김선초 김성웅 황인우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하는 이해완 회원은 교회에서 15년째 재능기부 중이라며 영성충만한 성경 낭독을 들려주었고, 정년퇴직하기까지 치열하게 살면서도 만년 소녀 풍모를 잃지 않고 스포츠댄스 시범도 보인 송광자 회원이 1등에 뽑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정화 회원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신기하다. 5년 후 또 만나자, 참 좋다!"라고 말했고, 전인선 회원이 "군인 출신 남편을 따라 임관 5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내게도 이런 가슴 벅찬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했듯이, 참가자 모두 감격스러워하고 지켜보는 이 모두가 부러워한 참으로 멋진 홈 커밍 데이였다.

글 / 편집장 황인우(전 KBS)

고맙습니다



활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이지연(전 CBS) 50만 원



임화숙(전 KBS) 이세큐 대표 90만 원



성연미(전 KBS) 봄은아카데미 대표 100만 원



성선경(전 DBS) 동천모자 대표 150만 원 광고

연회비 납부자 박교서, 이연영, 신영일, 이숙영, 박영주(KBS), 김주혜, 오승연, 임화숙, 성연미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미 KBS에서 정년퇴직
장혜경 포항MBC에서 정년퇴직

축하합니다

박민정(전 MBC) 2020년 2월 23일(일) 오전 11시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책사가든서 아들 고영목 군 혼사
고성균, 이소연(전 KBS) 10월 13일 아들 인수 군 혼사
김보빈(tbs) 9월 27일 득남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조의를 표합니다

김현태(KBS) 12월 12일 부친상
김희성(전 KBS) 12월 1일 시모상
최창섭(전 MBC) 11월 27일 모친상
강재형(MBC) 11월 20일 빙모상
김보영(전 MBC) 11월 20일 부친상
이창진(KBS) 11월 17일 부친상
황선숙(MBC) 11월 2일 시부상
박민정(전 MBC) 10월 11일 시부상
오유경(KBS) 10월 3일 부친상
김소원(SBS) 9월 26일 부친상
이정희(전 KBS) 9월 17일 본인상

CAP 모자

| 구매상담 02-974-2950



DONGCHUN

www.dcvr.or.kr

- 사회적기업 인증(제2007-24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제2009-004호)
- 공공기관 근무모자, 기업체 행사모자 주문 제작



주요거래처



Cartridge

재제조토너 카트리지 | 구매상담 02-976-2950

■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1. 우수한 인쇄품질
2. 정품대비 50~70% 비용절감
3. 중증장애인생산품·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포함
4.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 생산품목 : 삼성, HP, 롯데캐논, 신도리코, 후지제록스

■ 주 소 : (01747)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8길 41